

도행

MARCH
2023

* 특별인터뷰 : 19대 정문경회장

* 19대 집행부 활동 총결산

* 만남 : 회원인터뷰 결산,
회사탐방 결산

특별인터뷰 : 제19대 지반공학회장을 마무리하며

- 19대 지반공학회 정문경 회장

19대 지반공학회 집행부 활동 결산

- 학술발표회 및 지반의 날 행사
- 국제교류 및 협력
- 대외협력 및 공동심포지엄
- 전통강화 프로그램
- 고문초청 간담회
- 지역간담회
- 전문위원회 활동

만남

- 회원 인터뷰 결산
- 회사 탐방 결산

Event / Quiz

- 3월호 표지 사진 이야기

제 19대 지반공학회장을 마무리하며

정문경 회장

본 호에서는 한국지반공학회 19대 회장직을 마무리하는 정문경 회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아뵙고, 지난 2년간 지반공학회 회장직을 담당하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특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대 회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월간 뉴스레터 ‘동행’에서 다시 인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5월이죠? 창간호에서 인터뷰했던 것이 벌써 2년 전입니다. 地盤지 3월호 권두언에 이임사를 남겼으나, 여기 동행에서는 뉴스레터 취지에 맞게 좀 더 가볍게 2년의 기억을 기록할 수 있겠네요.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는데, 압축하자면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제 행복한 기억 하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참여가 있었겠어요?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동행’은 19대에서 회원과의 또 다른 소통 창구로 시작한 사업인데, 3월호까지 23회를 만드느라 서원석 홍보전담 이사님과 최영석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19대 지반공학회장 정문경

Q. 19대 회장임기 동안의 중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회장에 출마하며 ‘회원 모두가 함께 하는 한국지반공학회’라는 기치아래 3개 핵심, 16개 중점사업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워낙 탄탄한 학회라 전문학술단체로서의 고유 기능은 학회에 오랜 기간 봉사해온 코어(core) 그룹과 함께 전통을 따라 이어달리기를 충실히 하면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19대에서 강조한 핵심은 **다양성, 소통, 미래세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이, 특히 산업계에 계신 회원들, 학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가능하다면 직접적 활동을 하게 하는 동인을 제공하는 것을 학회 발전의 핵심 전술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젊은 회원들에게는 어떤 형태이던 학회와의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학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하여 여기상태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연속 반응이 따라오는 이치입니다.

집행부와 함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했습니다. 지난 2년간 활동의 상세한 내용은 19대 활동보고서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참고해주세요.



* 2021년 3월 정기총회시 신입회장으로 학회기를 휘날리며...

제19대 지반공학회장을 마무리하며 정문경 회장

Q. 19대 회장역할을 수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 주십시오

첫째는 코로나죠. 우리 학회 관점에서만 얘기 하지요. 2020년이 제일 힘들었죠. 꿈쩍 달짝 할 수 없었으니까요. 18대 정충기 회장님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2021년 연설문과 기고문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 해 7월 대구경북지역위원회 방문했을 때 대구는 8인까지 함께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맙고 좋더라고요.

2022년 3월 16일 총회 때 국내 일일 감염자 수가 62만1천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주에 제1회 KGS-ASCE Geo-Institute와의 공동워크숍을 하러 미국에 갔는데, 체류 기간 내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노심초사 했습니다. 미국에는 코로나 피크가 1월에 지나가 수 백 명이 모인 학회장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귀국길에 오르려면 출발일 기준 이틀 이내 현지에서의 PCR 음성 검사가 있어야 했는데 다행히 대표단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였고, 게다가 운이 따라 3월21일부터 7일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되어 일상에 바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올해 총회와 봄학술대회를 전시를 포함한 전면 대면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둘째는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실력에 감탄하고 자긍심을 느낀 기억입니다. KGS와 Geo-Institute와의 공동워크숍 때입니다. 북미지역지반위원회의 준비와 진행의 수준, 17대 회장인신 정상섭 교수님을 포함한 우리 대표들의 발표 내용의 깊이 등을 직접 본 미국지반공학회 대표 선수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젊은 회원님들은 웬 국뽕이냐 싶겠지만 80년대 초 학번인 저의 느낌입니다.



* 고 김동수 교수님의 유작이며 우리 학회 차세대 주자들의 힘을 보여준 제10차 ICPMG

올해 1월 홍콩지반공학회와의 공동워크숍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홍콩 대표단에 맞추어 우리 대표선수들을 구성했습니다. 윤태섭, 김병수, 한진태, 장일한, 윤희구, 남부현, 주진현 교수님 등이 그 분들인데, 발표회와 만찬을 함께 해보니 우리나라에는 K-pop만 있는 게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너무나 든든하고 멋있었습니다.

세계지반공학회 TC 104 Physical Modelling의 국제 학술대회인 제10차 ICPMG는 여러 면에서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회 준비과정에서 조직위가 의도한 것은 우리 학회 회원들이 TC 104에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죠. TC 104 위원장대행 김남룡 박사님, 초청강연자로 나선 추연욱, 박헌준 교수님과 Bright Spark 강연자인 고길환 박사님의 활약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고 김동수 교수님이 하늘에서 분명 미쁘게 보셨을 겁니다.



* 코로나 시대에는 화상회의가 일상
2022년 1월 제1회 ACE Forensic Engineering conf. 중



* 2022년 5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0차 ICMGE 갈라 디너에서

특별인터뷰 제19대 지반공학회장을 마무리하며 정문경 회장

셋째는 고마움입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일을 잘해 주셨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각 회무 분야, 전문위원회, 지부, 지역위원회 등 등 일일이 다 언급할 수가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학회 초창기부터 함께하고 있는 강현옥 국장님을 포함한 사무국, 늘 믿음직합니다.

학회 홈페이지 개편은 우리 격에 못 미치는 홈페이지를 안타깝게 생각한 K-water 신동훈 박사님의 요청으로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티는 나지 않지만 품도 많이 드는 힘든 일인데 김영석 홈페이지위원장과 김재현, 홍원택 간사가 사무국과 함께 훌륭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학회 숙원 사업 중에 영어논문집 IJGE가 있습니다. 이미 SCOPUS와 ESCI에 등재된 상태이고, 2021년 초 스프링거와 3년 연장계약을 했고, SCI에 등재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임기 동안 완결하려 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재심사 외부환경이 변해서 현재 운영 체계로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면글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정영훈, 김영상, 이종섭 교수님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맡으실 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제가 2020년 12월 15일에 입후보 서류를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때 제 공약에 대해 ‘교수 아닌 첫 번째 회장 후보라 기대했는데 과거의 공약들과 다른 것이 뭔가?’라고 일침을 놓으셨던 한 선배님이 기억납니다. 건설 산업과 건설인을 비하하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속이 상한 회원님께서 제게 연락하여 ‘학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외침이 기억납니다. 서투르고 부족한 점 너그러이 봐 주십시오.



* 2022년 송년회 중, 좋은 분들과 함께한 즐거운 여정

우리 학회에 오랜 세월 봉사해 주신 역전의 용사님들의 학회 왕림이 어느 순간부터 뜸해집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신·구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지반공학 전통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족적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학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회지와 뉴스레터가 소개하는 젊은 회원들의 인터뷰의 반응이 좋다는 주변 평이 기억에 남습니다. 북미지역지반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입지와 가시성을 높이려 단결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애쓰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YGE 포럼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 회원들의 성장은 회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모든 기쁜 기억 중 으뜸은 좋은 분들과 즐겁게 일한 것입니다. 학술부회장을 맡은 김영욱 교수님이 단독 후보로서 20대 회장으로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았습니다. 이제야 얘기할 수 있는데, 김 교수님은 2년 내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려니 부담가고 무거운 일에 늘 자원해서 해주어 참 고맙습니다. 유능한 전담 부회장님들과 이사님들과는 성향과 취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도 복이었습니다. 사실 일하고 나서 축하와 재충전을 위해 함께한 수많은 자리가 더 좋았습니다.



* 2021년 여름, 전임 회장님들과 함께 (왼쪽부터 정문경 회장, 17대 정상삼 고문님, 18대 정충기 고문님)

제19대 지반공학회장을 마무리하며 정문경 회장

Q. 전국 방방 곳곳에서 근무하는 지반공학회 회원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장이 지역조직의 회원들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동남권지부, 5개 지역위원회, 북미지역지반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더불어 우리 학회의 중추이자 자랑입니다. 39년 역사에 1만2천6백여 회원인 우리학회는 다양성 그 자체입니다. 회장과 소수의 회장단의 활동만으로는 ‘회원 모두와 함께 하는 학회’를 만드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한 가운데 시작하였기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 외에는 숨통을 뚫을 보족한 대안도 없었습니다.

각 조직이 자발적으로 잘 움직이고 발전하는데 촉매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승수효과를 기대한 거죠. 백용 부회장과 함께 했는데 가는 곳마다 환대해 주셔서 고맙고, 2022년 하반기 부터는 지역의 자체 학술활동이 정상화된 것을 목격하였기에 기뻐했습니다.

대구에서 식사 중 ‘선거 때 말고 찾아온 유일한 회장’이란 말에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강원대 원심모형시험기 시연회에서 막걸리를 30g로 돌리는 실험을 했는데, 원심력으로 분리된 상등수 청주로 촉배를 들었던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지역방문의 진짜 수혜자는 저 자신입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새롭게, 깊게 교류하면서 학회와 회원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추억입니다.



* 2021년 10월 광주호남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방문 10인이하 식사규정 완화로 함께 식사



* 2022년 10월 강원대학교 원심모형시험기 막걸리 시연회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반공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나아갈 방향은 새로 취임하는 20대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다만 제 임기동안 구상했던 앞길은 이렇습니다. **한국지반공학회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지하 고속도로와 광역교통시설 건설 수요 증가, 초대형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 등 우리 지반공학 전문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고 더 많은 유능하고 젊은 엔지니어가 모여드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회도 힘을 보태야겠습니다. 저와 19대 집행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1년 12월 이사회 중, 언제나 마스크. 왼쪽부터 김영욱 차기회장, 정문경 회장

제37회 정기총회 및 2021 봄학술발표회

2021. 03. 18.~19.
aT센터



- 구성 : KGS Lecture, 초청강연(2), 특별 및 전문세션(4), 실무자세션(1), 일반 및 학생세션(14)
- 발표논문 : 총 146편(구두: 78 포스터: 68)
- 참석인원 : 등록인원 282명
- 김수일 기념상 제정 및 시상

- 구성 : 초청강연(1), 특별세션(3), 전문세션(7), 일반세션(4), 학생세션(5), 여성위원회세션(1)
- 발표논문 : 총 127건(구두: 77, 포스터: 50)
- 참석인원 : 등록인원 총 318명



2021 가을학술발표회

2021. 10. 01.
aT센터

제38회 정기총회 및 2022 봄학술발표회

2022. 03. 16.~ 17.
aT센터



- 구성 : KGS Awards Lecture, 초청강연(2), 특별-기술세션(7), 일반세션(5), 학생세션(6)
- 발표논문 : 총 106건(구두: 63, 포스터: 43)
- 참석인원 : 등록인원 총 240명

- 구성 : KGS Awards Lecture, 초청강연(1), 특별세션(2), 기술위원회(4), 일반세션(3), 학생세션(6)
- 발표논문 : 총 70건(구두: 31, 포스터: 39)
- 참석인원 : 등록인원 총 214명



2022 가을학술발표회 2022. 09. 21.~ 22. KAIST 문지캠퍼스



+ 제8회 지반의날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6일(수) 13:30~17:30 더케이호텔 2층 가야금 홀
- 목적 : 제8회 지반의 날을 기념하고, 지반공학과 산업계의 미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 전문가 발표 및 포럼으로 구성된 학술행사
- 방식 :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으로 COVID-19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온라인 참여 기회 제공
- 행사 : 지반공학 발전방향 특별강연, 지하안전 주제 기조발표, 패널토론, 37년 학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영상 시청, 학회 배지 공모전 결과 보고



학회 배지 공모전 및 선정



실제 제작되어 배포된 2개 형태의 배지

+ 제9회 지반의날

- 일시 및 장소 : 2022년 6월 16일(목) 13:30~17:00 고려대 공학관 대강당
- 목적 : 제9회 지반의 날을 기념하고, 미래 지반공학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여 토론회/간담회 형식의 학술행사 진행
- 행사 : Forensic in Geo-Engineering을 주제로 법 지반공학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E Forensic Engineering 2022. 01. 25.~27., 2023. 01. 10.~12.

- 조직위 : 고려대학교 초융합 포렌식 연구센터 (센터장 이종섭 교수)
- 한국지반공학회, 한국강구조학회-한국방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학회
- 포렌식을 주제로 하여 풍성한 학술교류 및 정보공유



20th ISSMGE Sydney 참여 2022. 05. 02.~05., Sydney

- 한국지반공학회 대표 정문경 회장, 이종섭 국제전담이사 참석
- Council Meeting 참석



The 1st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 2022. 03. 20.,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rlotte

- COVID-19 팬데믹 이후 단절되었던 대면 워크숍 재개
- Urban Geotechnics & Geohazards 논의
- 한미 양국의 저명한 지반공학자 초청 및 발표



제4차 US-Korea Geotechnical Workshop 2022. 08. 18.,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 YGE포럼위원회와 북미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네 번째 Geotechnical Workshop.
- 주요 발표 논문 대상으로 국제저널(Geomechanics and Engineering, JCR Impact Factor 3.201) 특별호 출간 추진
- 한국,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오만 등에서 총 45편의 논문 접수

ICPMG 2022 (ISSMGE TC104) 2022. 09. 19.~23., KAIST 문지캠퍼스

-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지반공학회가 주최한 첫 전반적 대면 국제학술행사 성공적 개최
- 총 29개국 300여명 참석 및 205편의 논문발표

ISSMGE Asia Council meeting 2022. 06. 20. / 2022. 12. 20.

신임 ISSMGE 회장 및 아시아지역 TC 소개
국제교류 및 MOU 체결 관련 협의

The 1st KGS-HKGES 워크숍 및 MOU 2023. 01. 13., 연세대학교

홍콩지반공학회(HKGES)와 첫 공동 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한국과 홍콩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14명 발표 및 250명 참석(ISSMGE Asia VP 포함)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MOU | 2021. 04. 14.

-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의 공동 수행 등 협력체계 구축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MOU | 2021. 06. 30.

- 신기술 적용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협력
- 우수 신기술 정보교류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 양 기관의 세미나 및 전시회 등 공동행사 개최 협력



하천제방 관리기술 공동 심포지움 | 2021. 04. 21.

-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 공동수행
- 학술행사(교육 및 포럼), 토론회, 세미나 개최 공동 추진 등



집중호우에 따른 토석류 하천제방의 거동 공동 심포지움 | 2021. 12. 09.

- 새로운 광역적 산사태-토석류 통합 해석 기법(정상섭교수)
- 토석류 거동해석을 위한 수치모델링(백중철교수)
-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김운태교수)
- 2020년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토석류 및 하천제방 붕괴사례를 통한 관리방향(김승현박사)
- 국민안전을 위한 하천제방과 통문의 인증제(이상호교수)
- 바이오폴리머를 활용한 제방 통문 구조물 내부 침식 저항성 향상 검증을 위한 실규모 실험(김영욱교수)
- 패널토론



+ 전통강화프로그램

- 2022년 1월 전통강화 프로그램 신설
- 학술발표회 초청강연회
- 시니어 회원의 '나의 지반공학 이야기' 뉴스레터 동행 연재
- 地盤 학회지 시니어 회원의 칼럼 연재

성함	소속	비고
조삼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뉴스레터 2022. 02월호 지반(地盤) 2022. 03월호
남순성	(주)이제이텍 대표이사	뉴스레터 2022. 04월호
윤여원	인하대학교 교수	지반(地盤) 2022. 05월호
한명식	(주)태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뉴스레터 2022. 06월호
정두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지반(地盤) 2022. 07월호
황제돈	(주)에스코컨설턴트 부회장	뉴스레터 2022. 08월호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	지반(地盤) 2022. 09월호
조성민	(주)평원엔지니어링 대표	뉴스레터 2022. 10월호
최용규	경성대학교 교수	지반(地盤) 2022. 11월호
강병운	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뉴스레터 2022. 12월호
정충기	서울대학교 교수	뉴스레터 2023. 02월호





21. 10. 12.



21. 10. 12.



21. 10. 12.



21. 11. 12.

고문초청간담회를 통해 한해 동안 진행되었던 학회 업무를 보고하며 학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문님들의 조언과 격려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코로나 등 사회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한 조언과 토목의 역사 집필과정 공유, K-water 아라뱃길(경인항), GTX-A 현장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22. 05. 19.



22. 05. 19.



22. 06. 10.



23. 02. 16.

한국지반공학회 2023년 고문 간담회
· GTX-A 6공구 현장 방문 ·
2023년 2월 16일(목) 09:00 ~

+ 지역간담회

- 대전·충청지역기술발전특별위원회의 현황 논의
- 산사태 및 지진과 같은 지반 관련 재해분야에 대해 향후 협력방안 논의



2021.
06. 21.

- 2022년 위원회 활동 내용/계획 보고
- 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간담회



2022.
07. 21.

- 2022년도 운영방안
- 최근 학회 동향 설명 및 학회와 강원지역 발전특별위원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
- 포스코 삼척블루파워워터장 견학



2021.
10. 02.



2022.
06. 23.

- 6개의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 강원위원회 차기 행사 계획
- 강원지역발전특별위원회 운영회의 및 활성화를 위한 향후 프로그램 구성 논의



2021.
10. 22.

-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
- 애로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학회 소식 및 현안사항 전달
- 학회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발전 방안
- 기타 안건 등에 대한 논의



2022.
08. 13.
-14.

- 서남권연약지반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견 청취
- 지방대학의 토목공학과 학부과정과 지반공학의 대학원 활성화 방안 논의
- 학부과정과 지반공학 대학원 활성화 방안 논의

2022.
09. 15.



- 기술강좌 "건설안전 계측기술의 활용과 발전방안"
- 지부 명칭 변경안, 연구용역, 지부의 역할 등과 관련된 협의

강원

대전
충청

대구
경북

광주
호남

동남권

2021.
07. 08.



- 6개월 마다 기술특강 계획 논의
- 학술대회의 지역개최 방안 및 지역별 특별 세션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위원회가 연구 용역에 참여하는 방안 등의 활발한 토의

2022.
09. 15.



- 대구경북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세미나 및 운영위원회
- 대구경북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2021.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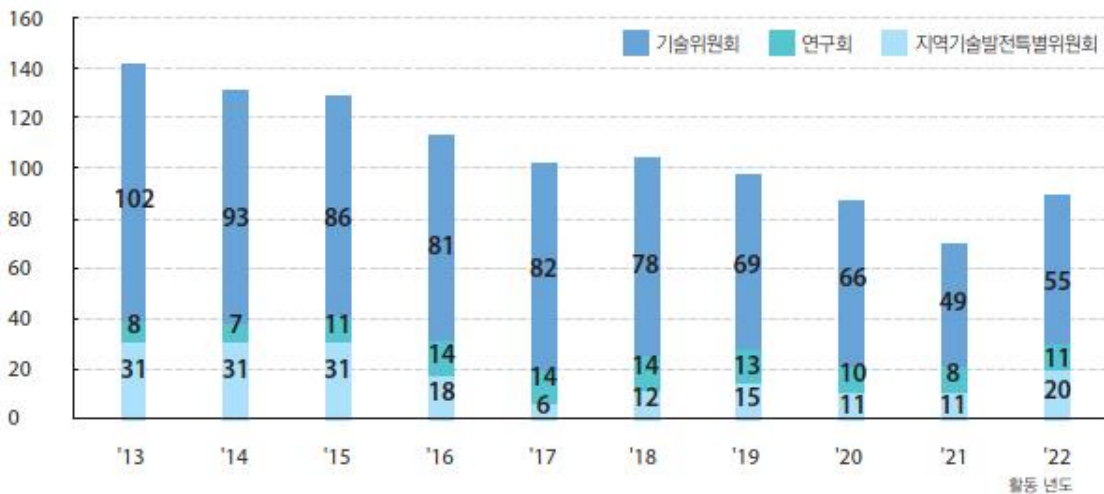
- 동남권지부 기술강좌 계획 논의
- 2022 불학술대회 창원 개최 방안 제안
- 지부 명칭 변경, 지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 우리 학회는 16개의 기술위원회, 5개의 지역발전특별위원회, 5개의 연구회, 3개의 상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회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회원 간의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답사, 계속교육, 국제 학술교류, 각 위원회 관련 국가건설 기준 검토, 공동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철도지반연구회는 최근 국내 철도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건설 기술 및 관련 설계기준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인지되어 철도노반 관련 연구자 및 기술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의 제한속에서도 2021-2022년 기간동안 다양한 전문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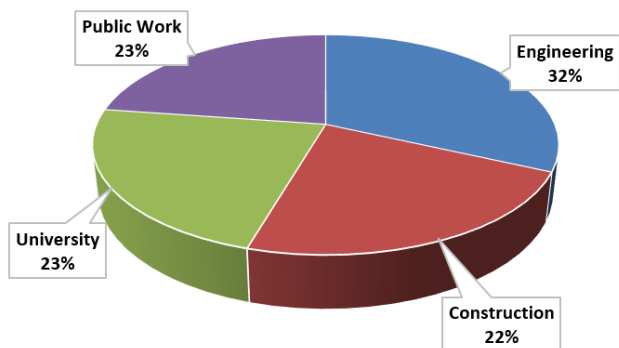
활동 횟수



1. 만남의 탄생과 초기 에피소드

홍보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호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지반공학회원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학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골고루 듣기 위해 회원들의 소속 조직의 성격을 크게 4개로 나눠 균형있는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뷰한 회원들의 조직성격



2021년 창간호(5월)의 첫 인터뷰는 평택 미공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윤 회원을 찾아 갔습니다. 홍보위원이 2014년 평택 미군기지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여러 명의 미공병단 엔지니어들이 기억나서 창간호의 인터뷰는 미공병단에 근무하는 지반공학회 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윤회원을 인터뷰하면서 가족들이 지반 공학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1주년(2022년 5월) 인터뷰는 동생인 이상인 회원을 만났습니다.



*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 중인 이상윤 회원

2. 인터뷰 참여 명단

지난 2년 동안 총 22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름과 소속만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날짜	회원명	소속	비고
2021.05	이상윤	미공병단	
06	이혜지	삼성물산	싱가포르
07	김범준	강릉원주대	
08	윤명준	유신	
09	Rahim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10	백현욱	한국농어촌공사	
11	황은하	미래지반연구소	
12	정승태	현대엔지니어링	
2022.01	김남룡	K-water	
02	한병권	GPENC	
03	김 황	다산	
04	박성용	용인시청	
05	이상인	인천대학교	
06	조재연	COWI UK	영국
07	정연중	서울기술연구원	
08	강민수	KH건설	
09	김우중	수성엔지니어링	
10	황근배	GTEC	
11	이제우	GS건설	호주
12	김태식	홍익대학교	
2023.01	홍기권	한라대학교	
02	신원재	GS건설	

3. 스페셜 게스트

우리 학회의 상치위원회에는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외근무 중 휴가중인 이혜지 회원과 인터뷰를 하였고,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황은아 회원을 만나 연약지반 설계/시공에 대한 많은 경험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반환경공학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Rahim Shahrokhi (이란)를 만나 한국에서의 생활들을 들었습니다.



* 현장 안전모가 익숙한 황은아 회원

4. 전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반공학 회원

우리나라 지반공학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면서 해외 근무가 많아지고 있으며, 해외의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 COWI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재연 회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귀국한 와중에도 인터뷰를 응해주셨습니다. 특히, 베트남 최초의 철도터널을 현지에서 설계 업무를 하고 계시는 김우종 회원은 현지 합동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베트남 하노이의 케넷철도 합동사무실의 김우종회원

5.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는 지반공학의 선도

사회 전반적으로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우리 지반공학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와 AI를 지반공학에 접목하는 회원들의 연구활동과 실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메타버스 프로젝트 연구를 소개해 주신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연종 회원과 드론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여 지반함몰과 비탈면 유지관리를 연구중인 홍익대학교 김태식 회원을 통해 지반공학의 새로운 영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비행 중인 드론 모니터링을 하는 김태식 회원

6. 맺음말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학회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모든 회원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홍보위원회도 회원들을 만나서 간접 경험의 체험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졌으며, 회원들이 편안한 읽거리를 위해 대화 형식의 포맷과 많은 그림/사진들로 만남 기사를 꾸며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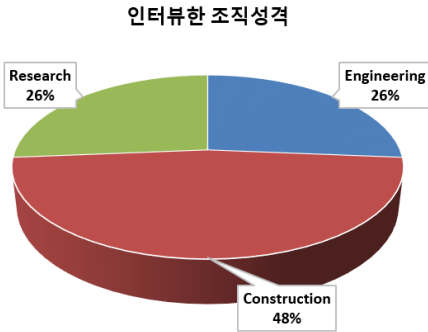
소중한 개인 시간을 할애하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 동안 만남 기사를 읽어주신 지반공학회 회원님들의 참여 감사합니다.

- 홍보위원회 일동 -

1. 지반공학 조직과의 만남

홍보위원회에서는 회원 만남과 동시에 지반공학을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조직을 만나서 다양한 분야의 지반공학을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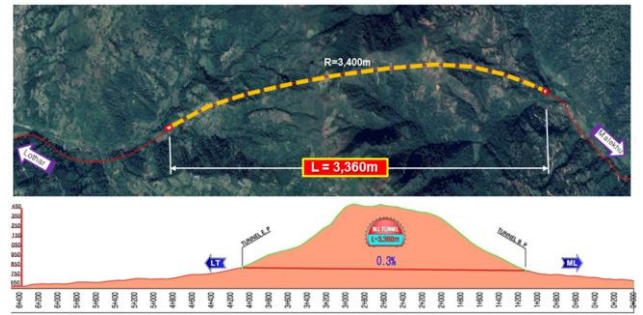
국내 아파트 현장의 말뚝시공 내용을 시작으로 시공과 관련된 지반조사, 말뚝재하시험 및 계측 등의 전문업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건설기준센터와 지진연구센터 등 지반공학을 연구하는 조직들을 만났습니다.



안테나 확장 오거를 이용한 말뚝굴착 전경(창간호)

2. 해외 발주처로부터 인정받는 설계회사

한국종합기술을 시작으로 SYSTRA KOREA와 이산 등의 지반공학 조직을 만났습니다. 해외 토질과 설계에 대한 local practice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기간 동안 직원을 해외에 상주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설계기술을 전파하여 발주처로부터 국내 지반공학 설계기술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팔 SASEC 터널 설계 (네팔 최장대 터널)

3. 특수기술력으로 지반공학을 선도하는 전문회사

홍보위원회에서는 안전 시공을 위한 전문기술력을 제공하는 전문회사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반설계의 기초자료를 위한 지반조사(휴먼앤어쓰)와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말뚝재하시험(한국건설시험원, 백경지앤씨), 그리고 시공안전을 체크하는 계측(에이티맥스) 전문회사를 만났습니다. 또한, 앵커 천공시 작업수와 천공 슬라임을 케이싱 내부를 통해 배출시켜 주변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공법을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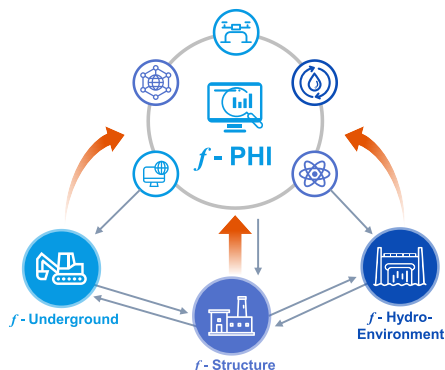


비교란 앵커천공기술 (지오알앤디)

4. 새로운 지반공학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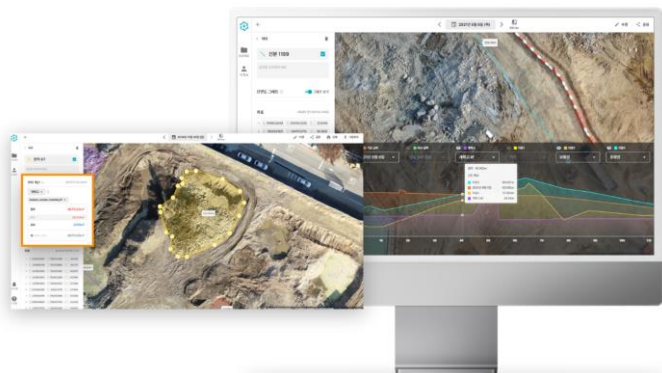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AI기술이 우리 삶과 같이 하면서 지반 공학에서도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재난 예측을 위한 사전탐지부터 정밀진단에 의한 사후 감식, 재난 재현 및 역추적 기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보강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성능향상 기술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안전 및 유지관리를 추구하는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가 활발히 운영중에 있습니다.



초융합 건설 포렌식 (고려대 주관 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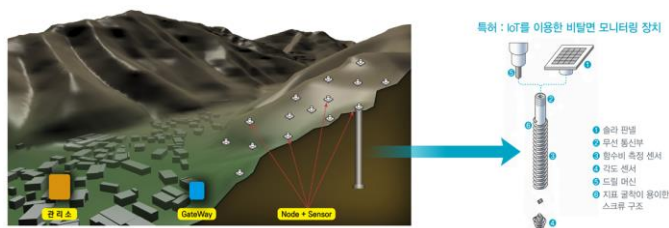
드론의 자율비행 기술과 카메라 고해상도로 사진 정보의 quality가 좋아짐에 따라 점차 의미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원 사진이미지를 겹치고 드론의 좌표와 연계함으로써 3D 포인트클라우드를 기반으로 3차원 수치표고모델이 만들어지고, 구조물 3차원 모델과 결합함으로써 지하층에 대한 3차원 지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매주 드론 촬영을 실시하여 토공량의 공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데이터로 재구성한 토공량 산출

5.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지반공학의 안전 추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와 돌풍과 같은 기상변수들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예방 경보시스템은 중요합니다.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망인 Private Lo-Ra 통신기술과 All-in-One 다기능 복합센서가 결합한 IoT 기반의 비탈면 거동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표층 침식이나 토석류 발생 그리고 비탈면 붕괴 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oT기반 비탈면 거동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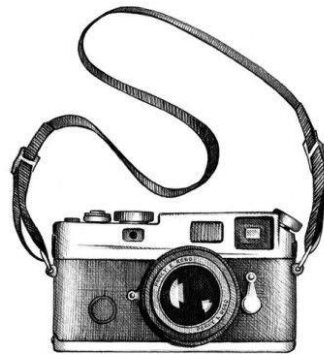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지진조기경보체계(한국지질자연연구원)

6. 맺음말

지반공학의 기본이론을 심층있게 연구하는 조직, 지반공학을 실행할에 접목하는 조직, 미래 지반공학의 먹거리를 찾고 있는 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지반공학을 전공하시는 모든 개인과 조직들이 있기에 우리 지반공학이 앞으로 더 가치있고 타 분야를 선도하는 학문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표지 사진 이야기



NEWS LETTER 2023년 3월호 표지 사진은 한국종합기술 백광민 회원의 사진을 중심으로 그동안 동행 표지사진 총 22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로 사연이 깃든 멋진 사진들을 학회 회원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6년 사업차 방문한 네팔 둔체(Dhunche)에서 트레킹을 하면서 본 출렁 다리입니다. 둔체 지역은 행정구역상 네팔 바그마티 주의 8개 지구(district) 중 라수와(Rasuwa) 지구의 수도로서 카트만두로부터 북쪽으로 약 43.57km 지점이 있습니다. 트레킹의 성지로서 랑탕 국립공원(Langtang National Park:면적 1,710km²)의 서단에 위치하며,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중심지입니다.

지금 다시 보는 사진이지만 강을 이어주는 출렁 다리를 건너면서 느낀 아찔함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팔에서 트레킹을 계획하시는 회원 분들께서 둔체를 방문하시면 산악 지형만이 가진 아찔함과 절경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iz

지반공학회 NEWS LETTER 동행은 19대 지반공학회 집행부에서 월간으로 발
행하는 회원들의 소통을 위한 비공식 내부 잡지입니다.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시작했던 Quiz는 각 월호에 실린 내용을 읽으셨으면 누구
나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
행될 수 있었습니다.

19대 집행부 뉴스레터 동행의 마지막 Quiz 정답자 분들을 공개합니다.

2월 Quiz 정답 : ② 홍콩지반공학회



응모자 분들에게 스타벅스 카드 e-Gift 1만원권을 문자
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초 정답자 : 박대웅 회원(삼우기초기술)

추첨 당첨자 : 정성규 회원(서울시설공단)

이권수 회원(동명기술경단)

박정식 회원(세방이엔에스)

박성용 회원(용인시청)

광고

2023년도 봄학술발표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한국지반공학회 봄학술발표회 안내

한국지반공학회

2023년도 봄학술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논문 제출과 사전등록 일정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수)
~ 23일 (목)

여수컨벤션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1
(덕충동))

• 논문전문 제출방법

- ① <https://www.kgshome.org/> 접속
 - ② 메뉴 - 학술대회 - 2023 봄학술발표회 - 논문접수
 - ③ 안내에 따라 전문 제출
- 파일명 : 분야 - 주저자 - 제목(8자 이내) ex) 댐제방 - 홍길동 - 하천제방 및 배수

논문전문 마감 : 2023년 2월 17일(금)

• 사전등록 : 2023년 2월 6일(월) ~ 3월 6일(월)

• 등록비 안내

구 분	사전등록 (2023년 2월 6일(월) ~ 3월 6일(월))	현장등록
정회원	80,000원	100,000원
비회원	100,000원	120,000원
학생회원	40,000원	60,000원

• 사전등록비 납부 방법

- 카드결제 ① www.kgshome.org 접속 ② 메뉴 - 학회안내 - 회비납부 - 회비납부결제
- 계좌이체(본인명의) 국민은행 468037-01-007989 (사)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봄학술발표회 실행위원회 위원장 윤태섭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정문경